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3 1997

별책 부록 : 어린이란

3 1997

성도의 벗

표지 설명:

자녀들(*왼쪽부터:* 엥가이람, 헤이람, 호안)과 함께 한 홍콩 톨로 하버 스테이크의 릭키와 셀리아 웡 부부 및 셀리아의 어머니 펑 신 수코이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어먼드, 별도의 설명이 있는 부분 제외)

어린이란 표지: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로키 산맥에서 처음으로 가진 주일학교*

이 그림에 나오는 리차드 밸런타인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온 지 2년 후인 1849년에 교회의 첫번째 주일학교 반을 조직하고 가르쳤다.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18 브리감 영: 타고난 열정 로널드 케이 에스플린

26 소음 바다 속에서 젠스 젠슨과 폴 코너스

30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네임 위드헬드

34 홍콩의 꿈이 실현되다 켈린 릭스 애덤스

44 나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니나 바자르스카야와 발레리 파커

청소년란

7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10 세상 꼭대기에서 윌리 홀드맨과 리차드 엠 롬니

28 신앙의 날개로 비키 에이 그로버그

46 인간의 것이 아닌 나의 음성으로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16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25 방문 교육 메시지:
믿는 것과 견디는 것

33 몰몬 메시지:
단 한 번으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어린이란 (별책 부록)

2 자주 기도함 패트리샤 피 피네가

4 이야기: 해롤드의 목록 다이앤 엘 맹검

8 함께 나누는 시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캐런 애쉬튼

10 어린 친구를 위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라
콜리스 클레이튼

12 노래: 개척자
루스 뮤어 가드너와 반자 와이 왓킨스

14 탐험: 성도들이 함께 모임
쉐리 존

성도의 벗 1997년 3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스펜서 제이 콘디, 엘 라이오넬 캔드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스탭: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칼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라우드
편집/제작부장 :메리앤 마틴데일
제작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엠 가와사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새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데니즈 커비, 메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담당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372호, 제34권, 제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운동 7번지
인쇄인: 심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March,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63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발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창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모든 문화를 존중함

저는 열다섯 살에 모국인 페루에서 침례 받고 지금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믿으며 복음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에겐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 선교사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및 각국 정부에서 모든 나라와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서로가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것을 늘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드립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
제이 콘도리 장로

강하게 하고 단합시킴

*성도의 벗*은 전세계의 교회와 회원들을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를 강화시켜 주고 단합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1995년 8월호에 실린 파푸아 뉴기니아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성도의 벗*을 읽음으로써 저는 실로 복음이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교리와 성약 133:37)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브라질 아라피라카 스테이크
아라피라카 제 2와드
호세 페레이라 소브린호

간증을 키움

제 아들이 태어난 뒤로부터 저는 매달 어린이란을 그 아이에게 읽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제 아이가 그 말들을 다 알아듣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얼굴의 미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제 아들은 이제 세 살이 되었으며 어린이란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니파이의 이야기들은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직접 몸짓으로 흉내내는 걸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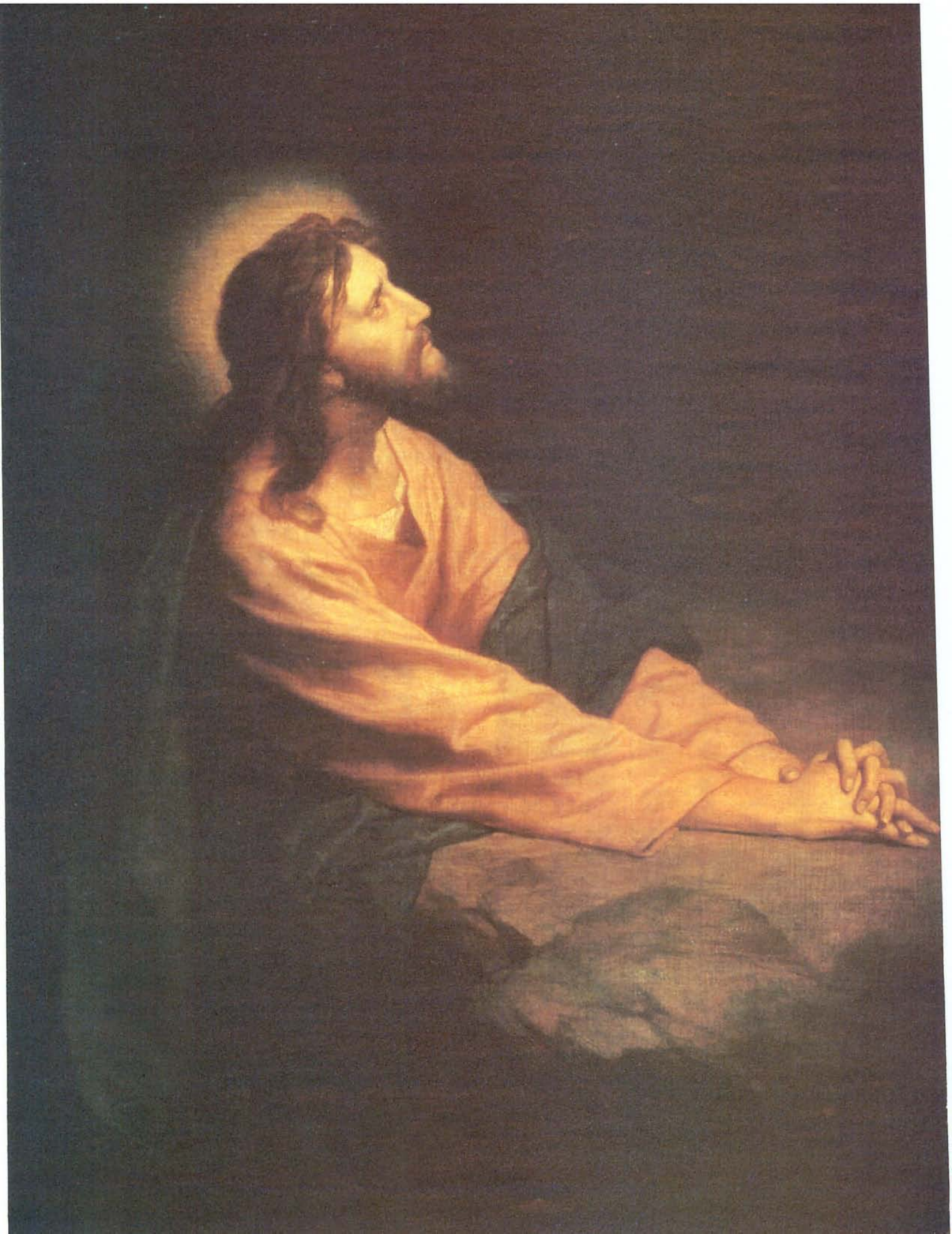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읽음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저는 또한 아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 아들의 간증을 키우는 가치 있는 영적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시간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툴라 스테이크
툴라 와드
아나벨 후어레즈 데 메라

좋은 습관

제가 *리아호나*(영문 판)를 읽고 상고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 실로 큰 축복이며 영감적인 것입니다. 이 잡지에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얻는 지식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삶에 축복이 될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모롱 지방부
버각 지부
소니아 시 고메즈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관장단 제2보좌

그림: 프랭크 솔테즈,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프로비던스 리토그래프사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이번 시월이면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지 25년이 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은 지 19년째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해 많은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가르침의 일부로 간증을 전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히 올해를 간증의 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매 해가 간증을 하는 특별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간증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물론이고 실생활을 통해 간증을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다음 말씀으로 저의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1:16)

저의 증조부 헨리 제이콥 파우스트는 프러시아 라인란트 지방의 헤데스하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파우스트 가는 미국으로 이주를

했으며, 파우스트 할아버지께서는 캘리포니아의 금광에서 큰 돈을 모으기 위해 서부로 가던 중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유타를 지나 남으로 가다가 필모어라는 작은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분은 엘시 앤 에컬리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나 그 분이 만난 이 아가씨는 회원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개척자들과 함께 평원을 횡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둘은 사랑에 빠졌으며,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결혼 반지를 사기에 족할 정도의 금이 생기자 필모어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곳에서 결혼하셨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선교사로 인해 개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필모어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아리따운 아가씨의 간증 덕에 개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일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할아버지를 유타 주 코린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유타에 철도를 놓는 일을 돕고 계셨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이방인 청년 헨리 제이콥 파우스트에게 간증을 하신 그 아리따웠던 아가씨, 엘시 앤 에컬리 할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개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통해 간증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저는 펜실베니아의 한 육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작은 와드에서 지냈는데 그 곳에는 윌리암 지 스툽스라는 축복사님도 계셨습니다. 스툽스 형제님은 펜실베니아 주 웨인즈보로의 작은 마을에 있는 공구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두들 그 분을 "파피('아빠' 라는 의미: *역자 주*)"라고 불렀습니다. 친절하고, 점잖으며, 매사에 교회 회원들의 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만나본 사람마다 그 분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한번은 그 분과 같이 일하는 비회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몰몬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선교사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교리를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예배에 가본 적 또한 전혀 없지만, 스툽스 씨에 대해서는 압니다. 몰몬 교회가 스툽스 씨 같은 분만 배출한다면 거기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어느 정도로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금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헬리오 다 로차 카마르고 장로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종파의 목사였습니다. 그 분은 어느 토요일 아침 청소년 모임을 방문하고는 우리 교회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게 됐습니다. 교회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청녀가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과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했을 때 얻게 된 힘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헬리오 카마르고 장로는 이 청녀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그와 아내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카마르고 형제님의 간증과 결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분을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역 대표, 칠십인 정원회 회원, 그리고 성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말로 간증을 잘 하지 않거나 그것에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저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교리와 성약 60:2) 간증을 할 때는 겸손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3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고의 말이 되게 하라."(41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간증을 전해 주는 것은 바로 영의 권세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듯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간증을 전해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로버트 엘 마천트는 멕시코 선교부에서 패기 만만한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와 동반자는

그림: 로버트 티 베렛,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선교 임지에 가게 됐고 따라서 전체 선교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이 선교사 숙소에 있는데 자매 선교사들이 소책자 전도를 하려고 들렀습니다. 두 젊은 장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매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이들이 장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리에 대해 아주 정통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두 사람을 교리적인 면에서 곤경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으로 인해 한 자매 선교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지만 힘있고 아름다운 간증을 전했습니다. 마천트 장로와 동반자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으며 그런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의 순수한 간증이 오히려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가를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중보자요,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추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로 인해 경력에 해가 되었다든지 이 교회 회원이라고 겸허하게 인정함으로써 소중한 친구들을 잃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간증을 할 때는 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사항을 전해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중보자요, 세상의 구속주이시다.

둘째,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열쇠와 권능을 지닌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웠다.

셋째, 요셉 스미스 이래 교회의 모든 대관장들은 이 권능과 권세를 이어받았다.

넷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오늘날 지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교회의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

주님의 특별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과감히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져 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을 믿지 않았던 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항상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전부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거룩한 사도직에 부름 받은 것을 포함해 수많은 영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께 감히 간증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며 구속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예언자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세주께는 아주 중요한 분이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저는 베드로의 말씀으로 간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복음 6:66~69)

저는 주님께서 훌륭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사 가정에서 위대하고 간결한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독신 성인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한결되고 참된 사람으로 남아 주께서 성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혼자 교회 회원인 분들도 축복하셔서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놀랍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의무를 안고 있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분들은 자녀들에게 안식처와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곁에 임해 주시길 간구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충실함과 헌신 속에 평생 모범적인 삶을 사신 것으로 치하를 받으시게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이에 대해 겸손히 간증하게 되며, 그 가르침과 원리대로 생활할 때 얻게 되는 기쁨과 축복과 힘에 관해 증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2. 우리는 말 뿐만 아니라 생활로도 간증을 한다.

3. 주님은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입을 열지 아니하며"(교리와 성약 60:2)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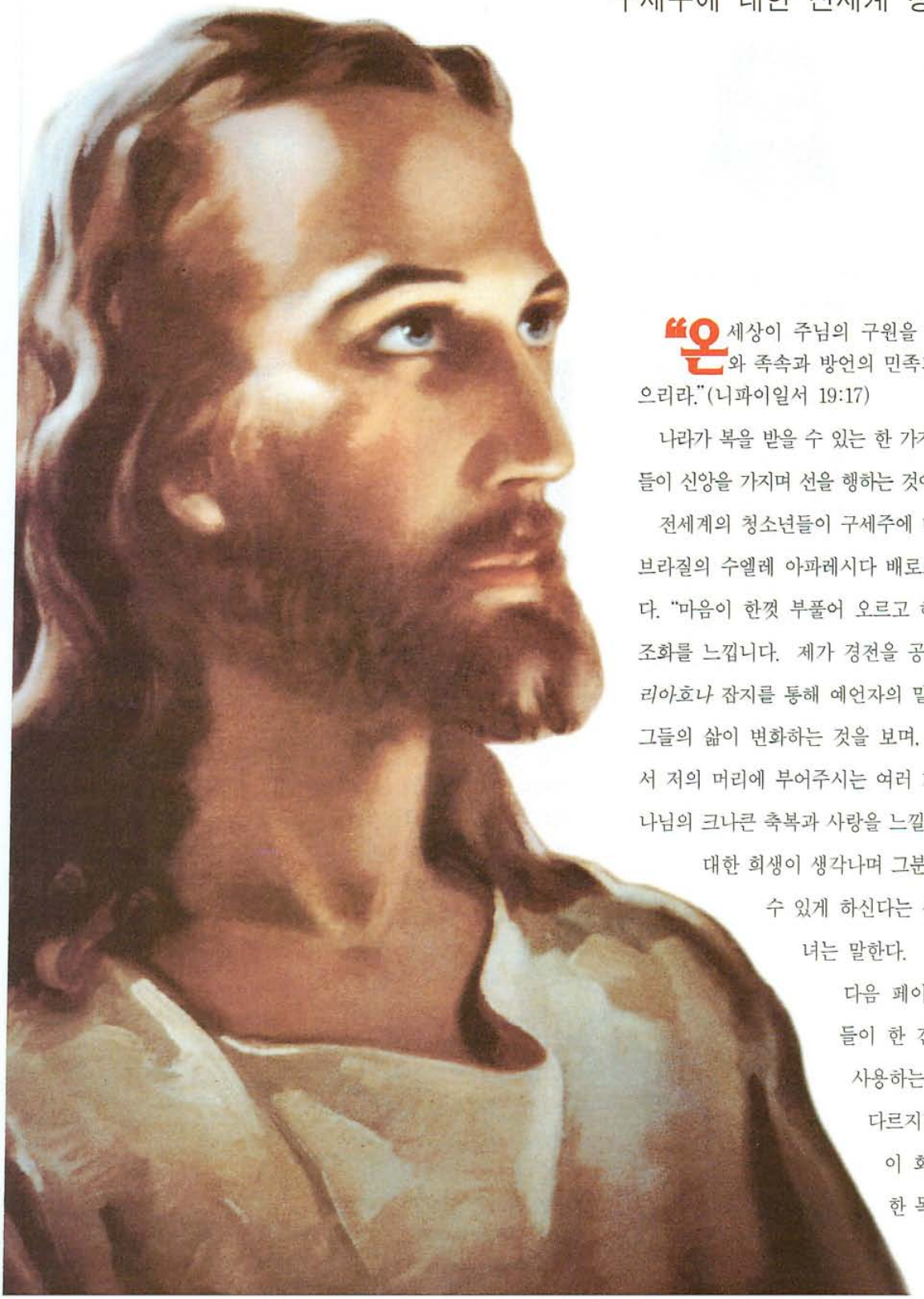
4. 간증을 할 때는 "온유하고 겸허하"(교리와 성약 38:41)게 해야 한다.

5. 영의 권세에 의해 우리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해진다.

6. 간증을 할 때는 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고 권능과 열쇠를 지닌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웠다. 요셉 스미스 이래 교회의 모든 대관장들은 이러한 권능과 열쇠를 이어받았다. 현재 살아 계신 교회 대관장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며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구세주에 대한 전세계 청소년들의 간증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니파이일서 19:17)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신앙을 가지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구세주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수엘레 아파레시다 배로스는 그중의 한 사람이다.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헤아릴 수 없는 화평과 조화를 느낍니다. 제가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며, *리아호나* 잡지를 통해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성신을 느끼며, 주님께서 저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이 생각나며 그분께서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다음 페이지에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한 간증이 실려 있다. 비록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회복하신 복음이 참됨을 한 목소리로 간증하고 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구세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케니 로버트선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제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복음 선교사로서 저의 간증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행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디아 아라슬 소토
멕시코 소노라 과이마스 테라자스

"스테이크 및 복음 선교사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리에 참여했을 때 저의 간증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방법을 얘기할 때면, 나의 마음속에서 성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안 칼로스 고메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저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평온과 화평을 주며 고민에 빠진 마음을 달래준답니다. 그분의 성스런 힘은 위대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저의 최대의 소망은 그분께서 제게 주신 생명과 이해의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마리아 세라피나 파리아
포르투갈 마데리라 푼찰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맏형이시며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사랑합니다. 불가리아의 우리 회원들은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화평의 장소요, 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원의 계획과 제가 이 지상에 오게 된 이유, 즉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서 제 자신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나 토도노바 키리에오바
불가리아 소피아

"저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 순간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베푸시는 사랑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저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게 하고 싶습니다."

마카라니 티니라우아리
타히티 파피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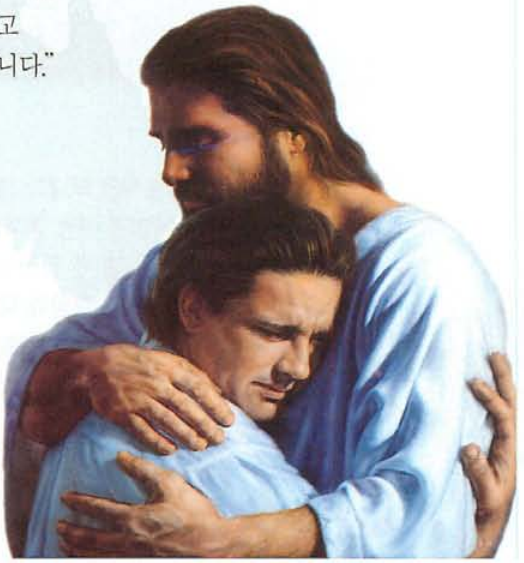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며 그분은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우셀 카브레라
오만 무스카트

"제가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한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저 친구에 대해 안됐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을 때, 저의 인생은 변화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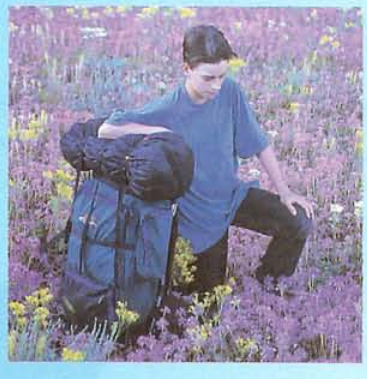
김영숙
대한민국 경기도

그림: 데릭 헥스테드, *여행의 끝*



세상 꼭대기에서

윌리 홀드맨이 리차드 엠 룸니에게 들려준 얘기임



영적인 모임과 경전 공부가 병행된 야영 경험을 통해 이 베낭을 맨 청남들의 주님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만약 여러분이 야영과 하이킹이 포함된 배낭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고 싶을 겁니다. 가져 가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한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침낭

—편한 신발

—가벼운 취사 도구

—경전

경전은 잊지말고 지참해야지요. 이것은 유타 스페니쉬 포크 스테이크 캐년 와드의 청남들이 지난 해에 배운 교훈입니다.

이 청남들은 와이오밍과 몬타나의 가장 경치가 빼어난 산에서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를 광야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로 삼음으로써 더 높은 정상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멋진 하이킹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 등반의 경우 영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라고 16세의 존 올드햄은 말합니다.

"이를 테면, 간증 모임을 먼저하고 여행을 시작하였지요. 아주 좋았어요."라고 18세 된 조슈아 크리스턴슨은 말한다. "석양이 질 때, 우리는 테튼 산을 바라보았지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 얘기하며, 구세주에 대한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행은 매일 영적인 모임과 노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경전 주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경전을 함께 읽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읽은 것을 생각하거나 그날 중에 실천을 하였습니다."라고 도우그 톰슨이 설명합니다. "밤에는 우리의 답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참가한 모든 사람이 경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생각하며,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라고 도우그는 말을 잇는다. "우리가 하이킹을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낭이 너무 무겁거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강행군을 하여야 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것이지요."

16세의 조 올드햄은 어느 날 남을 돕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 영적인 모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날, 저의 사촌 형인 존과 저는 제일 먼저 호수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배낭을 지키고, 나이 어린 형제인 마이크(14세)의 배낭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존이 내려가서 그 배낭을 들어 주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땔 나무가 물에 젖게 되자, 몇 명의 친구들이 와서 마른 땔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 날 우리는 봉사에 대한 구절을 읽었답니다."라고 현재 브라질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19세의 알렉스 우라이크가 말한다.

"폭포가 많이 있었지요."라고 14세의 라이안 스테드맨은 회상한다. "폭포가 엄청나게 커서 바위를 아랫쪽으로 마구 토해내리고 안개를 자욱하게 뿜어 내더군요. 정말 멋진 장관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같은 장관을 보고 나니 모세서 6장 63절의 구절이 생각나더군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하이킹과 캠핑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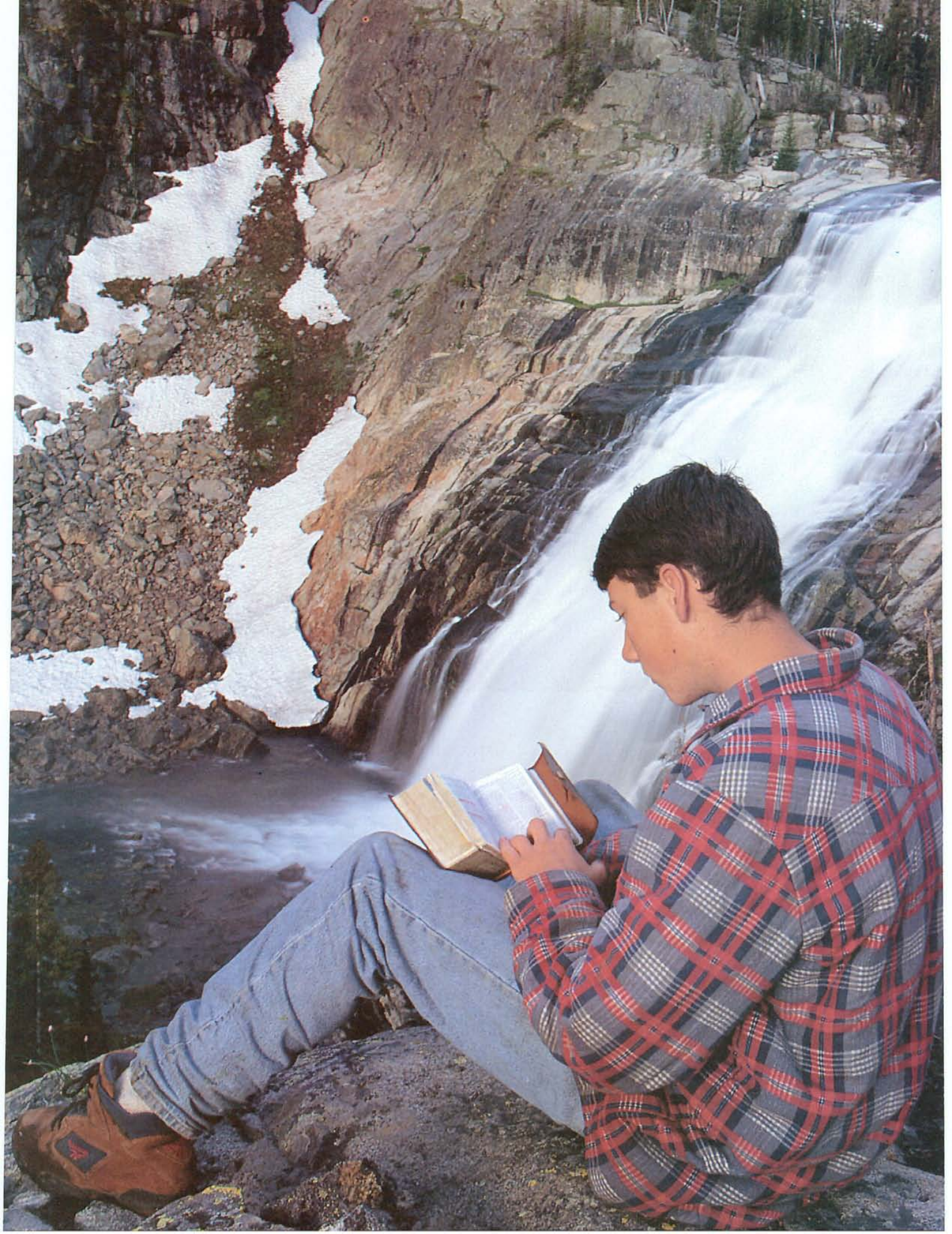
"저는 집에 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축복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16세의 조 엘리오트는 말한다. "들에 있을 때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을 정화하려면 20분간 펌프질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요."라고 존은 말을 계속한다. "농구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늘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진 영적인 모임에서 다룬 주제는 기도였는데, 언제라도 주제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 것에 대해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조슈아는 말한다. 우리는 등반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산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듯, 영적으로 어떤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남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여행을 통해서 영원한 추억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때를 맞추어 비가 내렸고, 내리는 비를 통해서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장엄한 경관에 둘러 싸인 청남들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모세서 6:63)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 동안 줄곧 내리던 비와 쌀쌀하던 날씨와 베낭을 메고 다니느라 몸이 고단했던 일도 명상과 간증 시간에는 까맣게 잊혀졌다

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애기하고 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고 애기한다. 좀더 배우고 싶은 욕심을 보인다. 얼음같이 찬 물에 빠졌다든가, 윙윙대며 무는 모기에 시달려야 했다든가, 낙오자를 찾아 산길을 다시 내려가야 했다는 등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애기하며 웃는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에 관해 경건한 자세로 애기하기도 한다.

그들이 들려주는 애기마다, 그리고 그들이 펼친 여름 활동 속에는 깊은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다.

어쩌면 마이크의 결론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배낭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전에 초점을 맞추어 여행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남다른 체험을 하였답니다."

이번 등반은 그들이 세상의 최고봉의 정복을 가능케한 모험이었다. □

단계별 준비 사항

다음에 보다 의미있는 하이킹이나 캠핑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한다.

1. 먼저 마음 속에 목표를 갖고 시작한다. 지리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목적지를 설정한다. 경전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신권의 목적을 갖는다. 먼저 간증 모임을 하여 전 여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실질적인 물건을 세심하게 준비한다. 필요한 장비를 빠뜨리거나 취사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경우, 여행은 더욱 즐거운 것이 된다. 세심한 준비를 하면, 보다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

3. 매일 영성을 일깨워주는 것을 준비한다. 매일 영적인 모임으로 시작한다. 잠시 휴식하는 동안 중요한 경전 구절을 다시 본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둔다. 자신이 지닌 통찰력을 같이 나눈다. 자신이 느낀 느낌을 일지에 기록한다.

4.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구세주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한다. 이를테면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모닥불을 위해 마른 나무를 구하며, 낙오자와 지친 사람이 없는지를 살핀다.

5.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고 산길을 가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따금 대화를 한다. 기도를 통해 인도와 지시를 간구한다. 특히 세상 창조의 기이한 업적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

하루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은 일행의 영적인 모임에서 쓸 수 있는 경전 구절과 토의 주제들이다.

앨마서 34:26~27 "… 너희 광야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위해 광야로 간 경전 속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한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데 기도가 도움이 되었는가? 하루종일 마음속으로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가?

모사이야서 4:16~26 "우리 모두가 걸식하는 자가 아니냐?"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돕는 가운데 함께 생존하고 있다. 남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도움을 준 다음 보람을 느끼는가?

모세서 6:63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고 체험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몰몬서 8~9장 모로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직접 몰몬서 8장과 9장을 읽어 본다. 여러분이 홀로 남아서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후일에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사람들에게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모로나이는 우리의 시대를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가?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함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영원히 진보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 많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 교회에는 자신을 아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나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옆에 동등하게 서있는 아내 없이는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아내들을 하나님의 딸들로 대하십시오."[1]

가족을 의롭게 돌봄

"현재 남편과 아내요, 아버지와 어머니이거나 장차 그렇게 될 여러분을 보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는 쓰레기더미나 진창 속으로 빠져 어찌할 수도 없이 헤매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 한 세대를 이 세상에 데려와 충성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참되고 의롭게 돌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처럼 위대하고 신성한 과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2]

독신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능력과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업을 기꺼이 행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충실하고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복음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능히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진리와 생명과 이해의 길입니다."[3]

영적 뿌리를 탐구함

"세상 사람들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신앙과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위기나 파국에 이르렀을 때 실제 본질은 그리 많지 않은 법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십시오."[4]

교회 내에서의 안전함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의 가장 큰 안전 장치는 바로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달려서 그 원리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은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며, 기이하고도 놀라운 기회들을 갖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관해 여러분은 무릎 꿇고 감사드릴 이유를 갖게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5]

교회의 선교 사업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돕는 위대한 선교 사업입니다. 이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불사 불멸과 영생의 길로 데려오기 위한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들입니다."[6]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비참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에 안심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녀들이 지상의 좋은 것들을 의로운 방법으로 얻어서 즐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자녀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거나, 곤경과 사악함과 죄와 궁핍 가운데 사는 걸 보고 싶어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행복한 걸 보고 싶어하십니다."[7]

훈육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음

"때로는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구속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원의 사업이며 사람들을 고양시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란 덤불 숲에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테이크나 와드에, 어떤 상처 받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버림 받고 잊혀지고 내던져지고 잘려 나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간청드립니다."[8] □

주

1. 1996년 1월 27일, 멕시코, 베라크루즈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2. 1996년 2월 11일, 유타 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기혼자 학생 지역 대회

3. 1996년 3월 3일, 솔트레이크 이민자 스테이크, 이민자 제2와드 성찬식

4. 1996년 3월 17일, 텍사스 주 플라노 지역 대회에서

5. 1996년 3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비스타 청소년 노변의 모임

6. 1996년 4월 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관리 감독단, 교회 관리 책임자 및 실무 책임자 모임

7. 1996년 4월 14일,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청년 독신 성인 모임

8. 1996년 4월 20일, 유타 주 스미스필드 로간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브리감 영이 보인 성공적인 지도력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 없는 신앙에 있다.

브리감 영: 타고난 열정

로널드 케이 에스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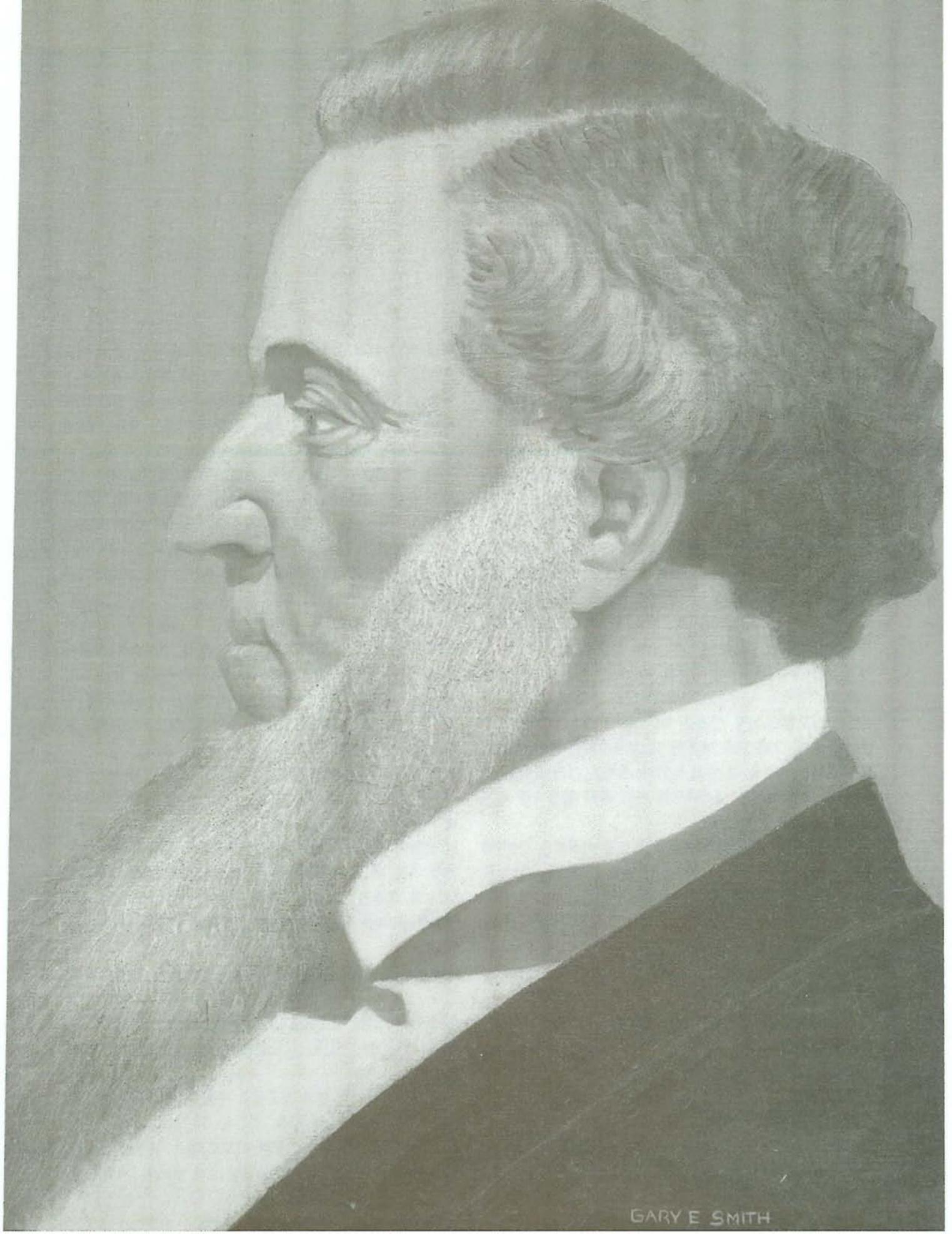
브리감 영은 매우 능력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당대나 그 이후 그의 다재 다능함과 판단력과 상식에 대해 많은 평을 했다. 1850년대에 그를 찾아갔던 프랑스 여행가 쥴스 레미는 "그만큼 수준이 높은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정치인이나 유능한 행정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1]고 결론지어 말했다.

그런데 브리감 영의 성공이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내적인 힘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원리에 신앙의 중심을 두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예언자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신다. 브리감 영은 그의 방향과 최종 행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담대하게 나아갔다.

브리감 영이 인생과 지도자 직분을 접하는 자세는 단순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를 행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2] 그는 날마다 *현재* 주님이 그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나, 즉 오늘 할 임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 애썼다. 일단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되면 이를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 자신에 관해 생각할 때면 나는 단순히 이것만 떠올린다.—나는 용기가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겠다."[3]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이러한 결의로 인해 그는 누구든지 주님의 명을 받아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늘 그렇게 자신감에 찬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 브리감 영의 삶은 암울했다. 1801년 6월 1일 버몬트 주에서 출생한 그는 하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목표에 대해 회의가 들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구도자로서 연구를 한 끝에 1830년, 교회로 개종해 침례를 받고부터는 사람이 달라졌다. 당시 그의 나이 30세였다. 후일 그가 말한 대로, "불같은 열정"[4]으로 새롭고도 중대한 목표를 가슴에 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키울 수 없는 신앙을 간직한 채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과 접하게 된 것이다.

1834년 브리감 영은 시온 진영에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기에 이르렀고, 요셉 스미스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됐다. 1840~1841년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에서 십이사도들과 함께 봉사함으로써 또 한번 그러한 순간을 맞았다. 이로 인해 브


GARY E SMITH

리감 영과 그의 동료 사도들은 강력한 팀이 되었다.[5] 이들이 귀환하자마자 예언자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그 후로 3년 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도들에게 권고를 주었다.

1844년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가 살해되자 브리감 영은 새로운 지도자 역할을 맡아야 했다. 여전히 비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예언자의 자리를 대신하기가 싫었지만, 그는 무엇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가는 알고 있었다. 그와 십이사도는 지체없이 전진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임무"[6]였기 때문이다. 그 처음 몇 달과 이후 로키 산맥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정작 브리감 영은 스스로를 주님과 예언자 요셉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행하기 위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 스미스가 사망한 뒤 브리감 영은 일의 우선 순위, 즉 맨먼저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지어 그 곳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하며, 그런 다음 예언된 새 보금자리를 찾아 서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의 불같은 열의 덕에 나부 성전은 십이사도의 지휘 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전 공사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하루속히 성도들을 나부에서 몰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적의 수도 늘어났다. 이들은 성전이 완공되면 몰몬들을 나부에서 몰아내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7] 폭력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1845년 1월 브리감 영은 잠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성전을 완공한다는 것은 곧 유혈 사태를 뜻하는데 그래도 성전 공사를 끝마쳐야 할까? 그는 일기에 이렇게 대답을 적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며 성전을 완공해야 하는지를 주께 여쭈어 보았다. 대답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다."[8]

영 대관장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이 서자 굳은 각오로 일을 진행시켰다. 5월에는 관석이 놓였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예정대로 12월부터 엔다우먼트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리감 영은 적에게 일침을 놓아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 해서 이 기간 내내 강한 어조로 말을 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느니 차라리 잘못된 고통을 겪겠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으며[9],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그 결과도 살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용감하게 행동해 나갈 수 있었다.

영 대관장은 일리노이에서 최대 규모의 병력을 지휘하면서도, 1845년 9월 마침내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나부 시민군을 풀어 놓는 일을 거절했다. 대신 그와 동료 사도들은 집중적으로 특별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이것을 역사가 비 에이치 로버츠는 "교회에서 행해진 *가장 훌륭한* 기도 기간"[10]이라고 불렀다.

성전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1845년 봄, 영 대관장은 서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요셉 스미스는 예전에 "멀리 로키 산맥 쪽으로…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에[11]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다. 예언자는 순교하기 몇 주 전 십이사도에게 그와 같은 보금자리를 찾도록 임무를 준 적도 있었다.

영 대관장은 집과 성전을 두고 떠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밝은 앞날은 나부가 아니라 서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라면 그들이 힘있는 백성이 될 것이며, 집과 성전도 새로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이러한 확신이 서자 영 대관장은 1845년 9월 폭도들이 나부 주변 정착지를 공격해 온 때를 이용해 오랫 동안 계획해 온 서부 이주를 공표했다.

브리감 영의 주된 관심사는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는 데 있었다. 성전 안의 자기 방에서 자주 금식을 하거나 매일 기도를 드린 뒤 그는 시현으로 그 곳을 보았으며,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편한 마음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 뒤 브리감 영과 성도들로 구성된 제1부대는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미시시피 강을 건넜다. 가는 도중에 영 대관장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서부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이오와의 대평원에서 동생인 조셉 앞으로 "제발… 내

그림 : 조다주 메이, 시온의 진영

1834년, 브리감 영은 시온 진영에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으며,
요셉 스미스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됐다.

가 집과 가족을 떠나길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 글을 썼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나부 쪽]을 돌아다 보면 어둡기만 하구나."[12]

하지만 아이오와에서의 경험은 그다지 하기 쉬운 것 같지는 않았다. 한 동안 교회 전체가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 의미에서 보든, 땅이 녹아서 질퍽해진 진흙 수렁에 빠져있는 듯했다. 수천명의 성도를 이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데는 브리감 영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식량도 훨씬 더 들어갔다. 이 때문에 그는 기운이 쇠진해졌으며 자신의 한계와 싸워야 했다. 체중도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더 이상 맞는 옷이 없었다. 심신이 탈진한 상태에 이른 브리감 영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게 됐다. 동시에 그는 요셉이 자신에게 권고를 해주고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으면 했다.

1847년 2월 17일 침상에서 일어나려던 브리감 영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실신해 버렸는데,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13] 그는 두 주일 후, 죽어서 장막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그 느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영의 세계에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본 것에 대해서는 즉시 기억하지를 못했다. "나는 그 일이 있은 후 아내가 말해 준 것 외에는 모른다. 아내에 따르면 내가 요셉과 하이람이 있는 곳에 다녀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살아서 다시 돌아오기 힘들었다고도 했다고 한다."[14]

브리감 영은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었다. 그는 나중에 일어나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꿈에서 요셉을 만나러 갔다." 요셉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큰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본 브리감 영은 그의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왜 그들이 전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요셉은 의자에서 일어나 브리감 영을 보면서 늘 그러던 어조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브리감 영이 이의를 제기하자 요셉은 대답했다. "잠시 저 없이 형제님 혼자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브리감 영은 자신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겨왔던 요셉에게 조언을 구했다. 요셉의 조언은 직접적이면서도 간단했다. "잊지말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시오."[15] 그런데 브리감 영은 고개를 돌렸다가 요셉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가야 했던 곳은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요셉이 완강하게 말했으므로 브리감 영은 "어둠 가운데 돌아와" 곧 잠에서 깼다.[16]

그림 : 미네르바 테이처트, 워터 홀의 브리감 영 부대

영 대관장은 나부의 집과 신축한 성전을 두고 떠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성도들의 밝은 앞날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는 서부에 있음을 알았다.

브리감 영은 로키 산맥으로 향하기 몇 주일 전부터 이 이야기를 자주 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이 경험 때문에 그가 영적인 힘을 얻은 것은 틀림없다. 또한 이는 주님과 (요셉이) 내린 사명을 띄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좀더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전히 지도자로서의 부담감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러나 그와 절친한 사람들도 늘 그렇게 평안했던 것은 아니다. 영 대관장이 병 중에 시현을 본 지 두 주 후 친형제인 조셉 영이 사무실로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백 파운드의 양식으로는—서부 이주에 필요한 최소치로 알려짐—각 개척자들에게 턱도 없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몇 달 전에도 브리감 영에게 성도들이 아이오와를 횡단하게 하려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큰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정말 제2의 기적이 필요한 것일까? 그는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재앙으로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감 영으로서는 이 식량으로—이것이 얻을 수 있는 전부이므로—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었다. "브리감 영은 이 양으로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아있기 바란다고 응답했다."[17] 영 대관장은 무모하게 용감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성도들은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한 후 달리 방도가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께 의지해야 했다.

영 대관장은 그처럼 흔들림없는 확신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갔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자신이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10여 년 뒤 브리감 영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백성을 이 산으로 보내는 원대한 계획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이 백성을 위해 구원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고 그는 주장했다.[18]

브리감 영은 1847년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간 이후 줄곧 이곳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사명감을 갖고 연구해 나갔으며, 또한 주님의 보호 하에 성도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키워나갔다.[19] 그는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이곳에서 쫓겨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20] 이렇듯 신앙은 그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됐고, 유타 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역 및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결정을 내릴 때면 큰 힘이 됐다.

1857~1858년, 영 대관장의 신앙은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다. 그 당시 알프레드 커밍햄을 위한 "호위대" 자격으로 군

대가 유타로 진군해 오게 된 것이다. 알프레드는 브리감 영 대신 주지사직을 맡도록 미국 정부가 보낸 인물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영 주지사가 즉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협상과 수용만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같았다.

영 대관장의 생각은 달랐다. 미주리 주에서 성도들이 겪은 일을 통해, 군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금방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영 주지사는 만일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재난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진군하는 군대를 저지하여 유혈 사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역 시민군을 동원했다. 목초지와 보급 마차들이 불에 타고, 양식과 가축은 몰수 당했으며, 선발대는 주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군대는 여전히 몰려왔다. 그러다 때마침 폭설이 내려 어쩔 수 없이 포트 브리저 부근의 동계 야영지로 퇴각을 했는데, 이곳은 솔트레이크 계곡의 몰몬 정착지로부터 약 160킬로미터 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21]

그렇다고 이것으로 진군이 끝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봄이 되자 군대는 지난 겨울 일에 대해 복수를 하려 했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이 있을 것을 직감한 브리감 영은 장정들에게 적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한 발의 포도 발사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영 대관장을 주님의 대변인으로 생각하는 한 지휘관은 "그 말이 맞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유혈 사태는 불가피했기 때문이다.[22]

군대가 계속 솔트레이크시티를 향해 진군해 오기는 했지만 브리감 영과 주지사로 임명된 알프레드 커밍햄은 토마스 엘 케인의 도움을 받아 평화 협정을 맺었다. 토마스는 회원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의 친구로서 목숨을 걸고 겨울에 유타로 온 사람이었다. 군대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황량한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 50여 킬로미터 쯤 떨어진 야영지로 갔다. 제시 고브 미 육군 대위는 유타전의 피해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사망자 없음, 부상자 없음, 전원 어리석었을 뿐임."[23] —정말 그랬다. 참화없이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늘 확신하던 브리감 영을 빼고는 모두가 어리석었다.

물론 영 대관장의 지도력에 전혀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없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으며, 나는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 어느 땐 내가 옳다. 동시에 나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빛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그 빛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24] 이것은 그가 실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늘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뜻이다. 그는 좀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별로 결실이 안 좋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했다. 그러나 방향이나 최종 목적지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계시에 입각한 장기 목표 역시 매일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게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것은 또 어떤 장애나 잘못이 있든 상관없이 매진해 나가는 데 확신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한 강한 신념 때문에 고집이 센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 유타 전이 평화롭게 해결된지 몇 달만에 영 대관장은 커밍스 주지사를 방문했다. 재난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고 우려를 하면서 공정한 태도의 이 주지사는 브리감 영에게 앞으로는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를 했다.

영 대관장은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지사님. 저는 제 일과 관련해 어떤 사람의 조언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시련의 기간 동안 친구나 조언자들을 경멸하지는 않았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다. "제 종교는 참된 것입니다." 라며 그는 주지사에게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살아 있는 한 그 가르침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따를 것이며, 그럴만한 신앙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위험이 따르든지 감수해 왔습니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을 맺었다.[25] □

주

1. 줄스 레미,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시티로의 여행*, 상하권(1861년), 2:495

2. *설교집*, 14:118

3. *설교집*, 5:97

4. *설교집* 1:90; 9:141; 16:69~70 참조

5. 제임스 비 알렌, 로널드 케이 에스플린, 데이비드 제이 위터커, *선교부를 가진 사람들: 영국 선교부에서의 십이사도 정원회*, 1837~1841(1992)

6. 브리감 영에서 빌레트 영까지, 1844년 8월 11일, 브리감 영 페이퍼즈, 공문서국, 교회 역사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이하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라고 인용함.

7. *교회 정사*, 7:363

8. 브리감 영 일기, 1845년 1월 24일,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9. *교회 정사*, 6:241~242; 조지 디 와트 의사록, 1845년 4월 6일,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10. *교회 정사*, 7:216. 자세한 것은 로널드 케이 에스플린, "브리감 영과 사도직의 권세: 기도로 왕국을 수호함, 1844~1845," *시드니 비 스페리 심포지엄, 교회사 150년 조망*(1980), 102~122쪽

11. 조나단 던햄, 요셉 스미스에 대한 토마스 버드윅의 말에서 인용, 1840년 8월 28일, 요셉 스미스 선집,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12. 브리감 영에서 조셉 영 스미스까지, 1846년 3월 9일, 브리감 영 페이퍼즈,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13. *존 디 리의 1846~1847년, 1859년 일지*, 상하권, 찰스 켈리 편집(1984), 1:90

14. *몰몬 선구자들에 관하여, 호세아 스타우트의 일기*, 1권, 1844~1848, 상하권, 후아니타 브루스 편집(1964), 1:238. 고등평의회의 서기 스타우트는 먼저 브리감 영의 말씀을 의사록에 기록한 다음 이것을 자신의 일기에 다시 옮겨적었다. 조셉 필딩이 이 사건에 관해 영 대관장이 말씀한 것을 듣고난 뒤 1847년 자신의 일기에 적어놓은 말씀도 참조

15. 브리감 영 자필 문서, 1847년 2월 17일, 브리감 영 페이퍼즈,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16. 호 세아 스타우트 일기, 1847년 2월 28일. 브리감 영은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 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현이며 요셉의 영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7. 윌라드 리차즈 일기, 1847년 3월 3일,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18. *설교집*, 4:4

19. 계곡을 보자마자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찬란한 영이 나에게 내려 앉았고 계곡 위를 선회했다. 나는 성도들이 그 곳에서 안식처를 찾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브리감 영에 관한 역사 사본* 1846~1847, 엘든 제이 왓슨 편집(1971), 564쪽

20. 이듬해 봄(1848년 5월), 브리감 영은 교회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동의했다. 바로 말일성도들이 로키 산맥 지대에 정착하도록 허용할 경우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로키 산맥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나 자신도 그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이 그 곳에 "안전하게 가서… 온 만방에 왕국의 화평한 원리들을 전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의사록, 1848년 5월 14일,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21. *유타 역사*, 리차드 디 폴 편집(1978), 168쪽

22. 브리감 시 의사록, 1870년 6월 5일, 브리감 영 페이퍼즈,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23. 제시 에이 고브, *유타 장정, 1857~1858: 제시 에이 고브 대위의 서한*, 오티스 지 하몬드 편집, 뉴 햄프셔 역사 학회 선집(1928), 351쪽

24. 의사록, 1860년 4월 30일, 말일성도 교회 공문서

25. 교회 역사가 연구소 의사록, 1859년 4월 24일, 말일성도 교회 의사록

믿는 것과 견디는 것

"어떤 이에게는… 믿는 은사를 주시며"(교리와 성약 46:13-14)

우리가 얻는 영적 복지의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발전시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행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는…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교리와 성약 46:13~14)는 은사를 주셨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88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과 모범으로 강화될 수 있다.

"신앙으로 견디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승리하여…" (교리와 성약 63:20)

백오십 년 전,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신앙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엘렌 푸셀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엘렌 푸셀의 부모는 1837년에 영국에서 침례 받았다. 미국으로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19년 동안 돈을 모은 후에야 그들은 마틴 손수레 부대의 일원이 되었다. 엘렌은 그 당시 9살이었고 언니인 매기는 14살이었다. 예기치 않은 지연으로 그 손수레 부대는 솔트레이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혹독한 겨울을 맞아야 했다.

"마틴 부대에서만도 135내지 150명이 고통과 죽음의 여행길에서 사망했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한다. 그들 가운데는 매기와 엘렌의 부모님도 있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 즉 굶주림과 과로에 시달리며 옷도 다 헤어진 상황에 처한 그들을 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고아가 된 두 소녀인 매기와 엘렌도 동상에 걸렸습니다. 엘렌의 경우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이 계곡의 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나 엘렌의 두 다리를 무릎 바로 밑까지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 도구라야 형편 없는 것들이었으며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절단된 끝 부분도 완전히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녀는 어엿한 여성으로 성장하여 윌리엄 언생크와 결혼했으며, 여섯 아이를 낳아 길러 훌륭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절단된 다리 끝으로 거동하면서도 그 자매님은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신앙과 밝은 표정으로 봉사했으며, 종종 고통을 느낄 때에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많은 후손을 두었으며 교육 받은 유능한 자손도 많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했던 주님과 복음을 그들도 사랑했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62쪽)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복음대로 살면서 오래 견뎌 온 고귀한 개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귀중한 모범들에 감사를 드린다.

빌린 빛으로는 오래 견딜 수 없음

우리가 간증을 키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확신은 우리의 여정을 받쳐 주는 신앙의 징검다리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간증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첫번째 책임은 우리 자신이 개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빌린 빛으로는 오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개심하십시오."(*거룩한 곳에 서라*[1975년], 95)

-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척자들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 줄 수 있는가?*
- *신앙으로 오래 견디어 온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소음 바다 속에서

젠스 젠슨이 폴 코너스에게 한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독일 하나우 시에 있는 한 음악 학교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직책 상 어느 한 악기 전시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악기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전문가다운 질문을 한두 가지 해 보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본층 여기 저기를 다니면서 보니 각 악기 전시실마다 방음 장치가 되어 있었다. 추측하건데 그것은 사람들이 트럼펫, 코넷, 프렌치호른, 오르간, 드럼, 튜바 등을 시험삼아 연주할 때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플루트, 오보에, 색소폰 등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으리라. 그러나 실은 "완벽한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말일 것이다. 마치 서너 개 관현악단의 단원들이 동시에 자기네들의 악기를 연주하는 양, 장내는 온통 소음으로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이층을 가리키는 화살 표시와 함께 "관현악기"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간판의 글씨가 좀 선명치는 못했지만, *나는 이제 살았구나*하고 생각했다. —실은 본층에 있는 악기들도 관현악기들이었다. 어쨌든 나는 좀 평온하면서 조용한 데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층으로 향했다.

이층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도 넓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본층보다 훨씬 더 많은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악기들은 대부분 록 음악 연주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층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썼던 본층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소음들로 시끄러웠다. 나는 제일 가까운 출구가 어디에 있나 하고 재빨리 실내 사방을 둘러 보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다. 불과 몇 분의 1초 동안이었지만 장내의 불협화음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 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환상이 아닐까?

잠시 후 또 그 멜로디가 들려 왔다. 틀림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장내의 소음 속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바이올린을 켜는 악곡임에 틀림 없었다. 나는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그때 다른 두 사람도 역시 나처럼 멜로디를 듣고 그 출처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을 찾아냈다. 한 남자가 가장 작은 칸에서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곡을 켜고 있었고 그 옆에 그의 부인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는 스웨덴에서 온 바이올린 제작자인데, 전자 기타와 신디사이저 악기들이 가득 찬 속에서 자신의 제품을 팔려고 진땀을 빼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그는 억울한 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속았어요. 우리가 이곳을 세 얻은 것은 여기가 당연히 관현악기 출품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다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였다. 귀에 익은 아름다운 곡을 그가 켜는 동안 우리는 넋을 잃은 채 듣고 있었다. 주위의 시끄러운 불협화음 따위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그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곡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참관인들로 초만원인 어느 칸에 들어갔다. 거기에 서있는 동안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실내가 너무 소란하여 나는 이 많은 불협화음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또 한번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아무런 멜로디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인간은 생활하면서 주위로부터 잡다한 소리를 들으며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소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니파이이서 28:7)라고 하는 것처럼 그릇된 사상을 주창하는 소리도 끼어 있고, 한편 뻔히 구태 의연한 부도덕으로 판명이 될 것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 이를테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뻔뻔스럽고 귀에 거슬리도록 요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이 소란스럽고 상반되는 메시지를 담은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은은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다. 마치 잘 켜진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고요하면서 세미한 음성도 실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

신앙의 날개로

비키 에이 그로버그
그림: 그레그 뉴볼드

가족과 함께 비행기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출발하여 북부 지방의 포사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가고 있었다. 그때 내 나이 열다섯 살이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비행기로 여행한 일이 있었지만 그날 타고 갔던 거와 같은 소형 비행기로 여행하는 데는 아직 익숙하질 않았다. 그 비행기는 탑승 정원이 약 50명 정도였는데, 틀림없이 50년 정도는 되보이는 노후된 비행기였다. 비행기 추락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했지만 나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그 비행기는 약간 흔들렸고 그때마다 내 몸도 흔들렸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지는 않았다.

그런데 큰 호수 상공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륙에서부터 내내 괴롭히던 공포심이 갑자기 엄습해 왔다. 눈을 감고 거의 본능적으로 기도를 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익혀온 나였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모든 것이 괜찮게 될거라는 고요한 확신이 생겼다.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 보았다. 이른 아침이었다.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해가 떠서 물과 하늘 모두 온통 짓푸른 색을 내고 있었다. 호수 위와 하늘에는 너무나도 하얀 안개가 거품지고 있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한때 비행기를 떨게 했던 구름마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스런 팔처럼 여겨졌다.

안도감을 갖게 된 나는 바다와 하늘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 두 곳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폭풍우를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일상적인 골치 아픈 문제와 때때로 폭풍처럼 엄습하는 공포들에 직면해야 하는 내 자신의 생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전에는 체험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연의 폭풍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마련해 주신 것을 그때 나는 처음 체험하게 된 것이다. 기도하고 쇠막대를 꼭 붙들고 있음으로써 폭풍우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고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 만큼 나이가 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날 아르헨티나 상공에서 있었던 나의 단순한 기도는 곧 나의 눈을 뜨게하여 창 밖을 내다보게 했었다. 그때 나의 시야에 들어온 장관은 나에게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네임 위드헬드

그날 전화가 걸려 온 때부터 악몽은 시작되었다. 열다섯 살 된 우리 아들이 마약과 알콜에 빠져 있으며 그것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수화기를 통해 한 부드러운 음성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우리는 군 보건소로 아들을 데리고 가 마약 음용 테스트를 받게 했다. 테스트 결과 아들의 마약 음용은 지정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었다. 그 주말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 복귀 지도소에 아들을 입소시켰다. 6주 후 아들은 거기에서 나왔고 나는 악몽이 이제 끝났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아들은 마리화나를 소유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검거되었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다. 아들의 마약 중독은 더욱 중증이 되었고 경찰에 검거되는 횟수도 늘었다. 불과 1년 동안에 10여 차례나 검거된 적도 있었다. 결국 아들은 6개월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아들을 면회하러 교도소를 방문하였으며, 그러고 나서 당시 시내에서 건축 중에 있던 성전으로 향했다.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는 앉아서 울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였다. 성전의 기도 명부에 아들의 이름을 써넣었고 금식주 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을 위해 금식하였다. 아들이 교도소를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된 후로는 매주 월요일 저녁 식사 때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 나는 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그 아이의 생활 속에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아들을 가르쳤던 전 초등협회 교사 한 분의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뒤에 경찰관 직업을 갖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아들이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뿐이므로 그가 잠든 동안 그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나에게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구체적인 말까지도 떠올랐다. 그러다가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내가 이 충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내가 그런 부탁을 해도 될까?

사진 촬영: 스티브 벤더슨

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아들에 관한 문제와 내가 품고 있는 강한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는 서슴 없이 아들을 만나러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경찰관 형제가 어떤 방안에서 나의 아들을 껴안고 서있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그들은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2시 15분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 형제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내가 먼저 그날 오후 2시 15분에 형제님이 아들을 만나러 간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도 환영 받지 못하는 그 아이의 집에 다녀 왔다고 말하여 나의 상상이 들어맞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 나의 가슴에는 감사함이 넘쳐 흘렀다.

그때부터 나는 영적인 강한 자신감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가 계속 성실하고 노력을 그치지 않는 한, 영적으로 커다란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아들이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뿐이므로 그가 잠든 동안 그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나에게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구체적인 말까지도 떠올랐다. 그러다가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내가 이 충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내가 그런 부탁을 해도 될까? 그러나 전과 같은 충동을 두 번 더 느낀 후, 비로소 그 충동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우리 아들에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생생히 기억케 해주시고 그의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느낄 수 있게 하시되, 구세주께서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즉시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감동 받은 대로 간구하였다.

얼마간 세월이 흘렀다. 어느 여름 날 밤 늦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서서 가족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지 불안해 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감독님 댁에 들렸다가 오는 길이며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달려가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울었다. 아들은 여태까지 그가 겪어 온 고통스런 생활을 두 시간 가량 이야기하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었던 남편은 처음에는 회의를 느끼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아들이 여러 시간을 이야기 한 후 두 손을 뻗어 그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얹으며 자기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고 부탁했을 때, 또 한 번 기적을 보았다. 남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의 마음이 즉시 부드러워진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들은 지도자 모임에서 그가 다시 활동화된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지도자 모임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생생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구세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제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즉시 알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감격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진실한 금식과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비로우신 지혜로써 내가 무엇에 관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아들은 드디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가 떠나기 전 성찬식에 참석한 인원은 무려 500명 가량 되었다. 하와이에서 우리의 친구들도 왔다. 그들은 엮어 만든 푸른 화환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성찬식 시작 직전에 아들에게 선사했다. 이 화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씌워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하면서 아들에게 말씀할 때 화환을 목에 걸치고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말씀하기 시작할 때 화환을 목에 걸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 상해 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말씀이 거의 끝나갈 즈음 아들은 드디어 화환을 들면서 화환에 관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자기는 진리를 위해 싸우러 나가는 용사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진짜 용사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여기에 따로 있다고 말하면서 그 분은 전쟁에서 어렵게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로 다가와 손을 뻗어 그의 옆으로 나를 끌어 당기더니, 사랑스럽게도 화환을 나의 목에 걸어 주는 것이었다.

시온에서 부모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손길을 뻗어 노력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누가복음 15:24) □

단 한번으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사진 촬영 : 스티브 번덤신

죄 가운데서 노는 것은 불을 갖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불에 타지 않게 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1:31-33 참조)

홍콩의 꿈이 실현되다

켈린 릭스 애덤스

홍콩 성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어몬드;
홍콩 스카이라인, 사진 촬영: 요이찌로 미야자끼, FPG국제 재단

주님의 집을 쉽게 방문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홍콩 성전이 헌납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엄마가 다섯 살 난 질 램에게 음식을 축복할 것을 부탁하자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손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나서 짤막하게 축복을 하였다.

집에 손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처음 몇 마디를 더듬거리면서 축복을 하였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빠르게 우물우물 축복을 하더니 이렇게 계속하였다.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질은 잠시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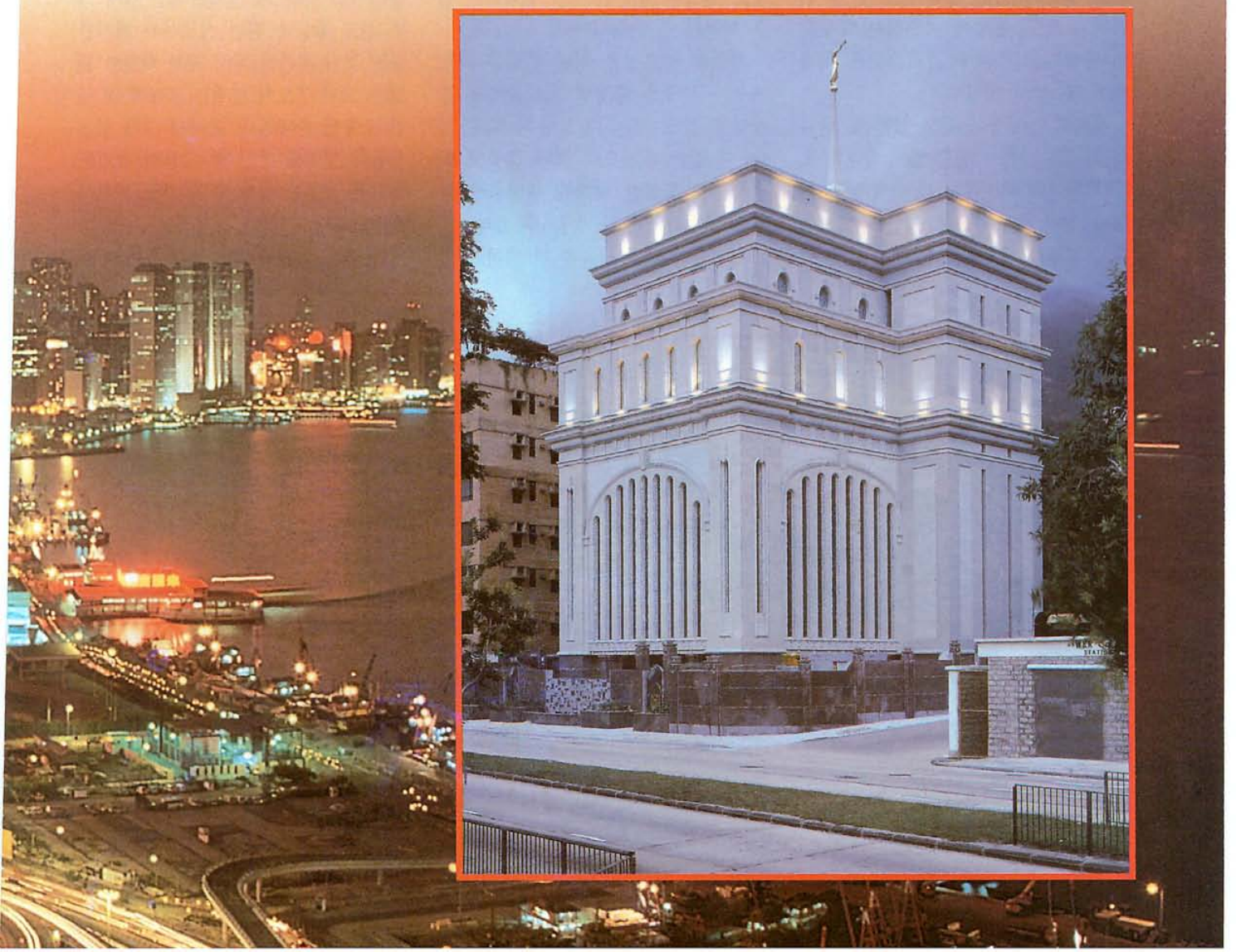
축복 기도를 얼른 끝내고 싶었지만, 작년에 가족 모두가 그토록 염원했고 집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언급한 소망이 생각났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빨리 지어지게 해주시고 언젠가 성전을 방문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단숨에 축복을 마쳤다.

질이 드린 간절한 기도는 1992년 10월 당시 대관장단의 제1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홍콩 성전의 건축을 발표한 이후부터 수천 명의 홍콩 회원들 모두가 염원하였던 소망이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교회의 대관장으로 1996년 5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홍콩 성전을 헌납함으로써, 이 같은 간절한 기도가 흡족하게 응답되었던 것이다.

동양의 진주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일명 동양의 진주라고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중국 본토의 남동 해안 펄 강의 어귀에 자리잡고 있다. 홍콩은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붐비고 사는 독특한 지역이다. 홍콩 영토는 약 1세기 전 중국이 영국에 99년 동안 미개척의 땅을 임대해 주었을 때 탄생하게 된 지역이다. 땅의 크기는 약 960km²이고 쐐기 모양으로 생긴 중국의 영토이다. 영국은 일찍이 중국과 맺은 조약에서 총면적이 약 90km²에 달하는 홍콩섬과 코울른 반도를 획득하였다. 이 두 개의 땅은 처음에 홍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곳에는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 영국과 중국간의 무역항 구실을 한 자연항이 있다. 그 이후부터 동양의 진주는 국제적인 무역과 금융 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7년 올해 7월 1일이면, 아담한 동양의 진주는 영국과 99년간의 임대 조약이 만료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약 600만의 홍콩 주민이 중국의 성, 지역 및 도시에 살고있는 약 10억의 주민과 합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다

홍콩의 성도들은 전세계의 다른 성도들과 서로 공통된 점이 많다. 홍콩의 성도 역시 순종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는 예사롭지 않은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홍콩 주민 중 대부분이 불교 신자와 도교 신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중국인 성도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요구 사항이다. 어린이는 세 살이 되면 학교에 간다. 고등학교를 일단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학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일 밤 세 시간 내지 다섯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여야 한다.

홍콩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취직을 하면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일주일에 7일씩 일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활비를 벌고 필요한 물건을 사며 취직하는 일은 여전히 주 관심사이다.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원리를 가르쳐주는 복음은 중국인 회원들에게 통찰력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비전으로 인해 홍콩의 회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서 화평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교회가 홍콩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일세대 개종자들이다. 이들 중 다수가 혼자만 회원이고 나머지 식구는 비회원이다. 이따금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서로 단합하여 홍콩과 자기 가족의 개척자라는 연대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 개척자 중 두 사람은 린다 최와 캐슬 챈이다. 이 두 사람은 홍콩 성전에서 최초로 결혼한 여러 쌍 중 한 쌍이기도 하다. 챈 형제는 6년 전에 가두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와 얘기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의 부모와 형제는 그에게 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따라서 그가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던 중 그들이 얘기한 영원한 가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족 중 그가 찾은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용홍 김

맨 왼쪽: 홍콩 성전의 해의 영광실
왼쪽: 탐 욱쿤 형제와 아내인 탐 리춘, 자녀들인 만주와 시우야우(유모차를 타고 있음)가 함께 있는 모습.
아래 쪽: 세미나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인 섹 웨이-쯔와 호셀리아
옆 쪽: 홍콩 톨로 하버 스테이크 톨로 하버 제1지부의 지부장인 칸조

람이 없었다.

3년 반 전에 그는 린다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복음 토론을 듣고 그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하였다. "캐슬을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는 물질적인 것과 재물만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캐슬은 정말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가족에 대해 자주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 종교야말로 그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면, 저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했습니다."

린다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그녀는 다른 배우자들과 가족들이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직접 관찰한다. "그들 중에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부모들도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들은 같이 걱정하고 돌봐 줄 친척이나 사람들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족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면서 즐기고 돈을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염원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린다는 침례를 받았다. 린다와 캐슬은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을 지침으로 삼고 두 사람이 추구하는 "영원한 가족"을 가꾸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 학문 및 질서의 집,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캐슬은 설명한다. "배우자들이 같은 교회의 회원일 경우, 종교 가치관과 목표가 같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나누면 행복은 두 배로 커지고, 그 사람과 슬픔을 같이 나눌 경우,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생활 방식임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리 힝 청과 아내인 쿰빈쿰푼숩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 강한 부부가 되었다. 6년 전에 그는 산재로 한 쪽 팔을 잃었다. 그는 병들고 그나마 실직까지 하여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들의 성원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

홍콩 성전에서 아내 및 자녀들과 함께 인봉 의식을 치르고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그의 눈에는 희망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저는 주로 돈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우선 순위가 달라졌어요. 외부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기만 회원이고 나머지 식구는 비회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주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할 때, 우리가 함께 있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얘기하면서, 홍콩 성전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몸짓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한다. "하루는 경전을 읽다가 위를 쳐다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저 그림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평화로운 느낌을 강하게 느꼈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성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선해야 하며,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리 형제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현재의 역경을 잘 이겨내고 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지요."라고 말하면서 그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준비 이외에도, 리 형제의 가족은 선교 사업에 여념이 없다. 가족이 모두 나서서 선교 사업을 한 덕택으로 이웃의 한 가족이 입교를 하였다. 현재 두 번째 가족이 복음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를 만난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남다른 까닭을 물었습니다"라고 리 자매는 설명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존경스럽고, 순종을 잘 하며, 서로 협조를 잘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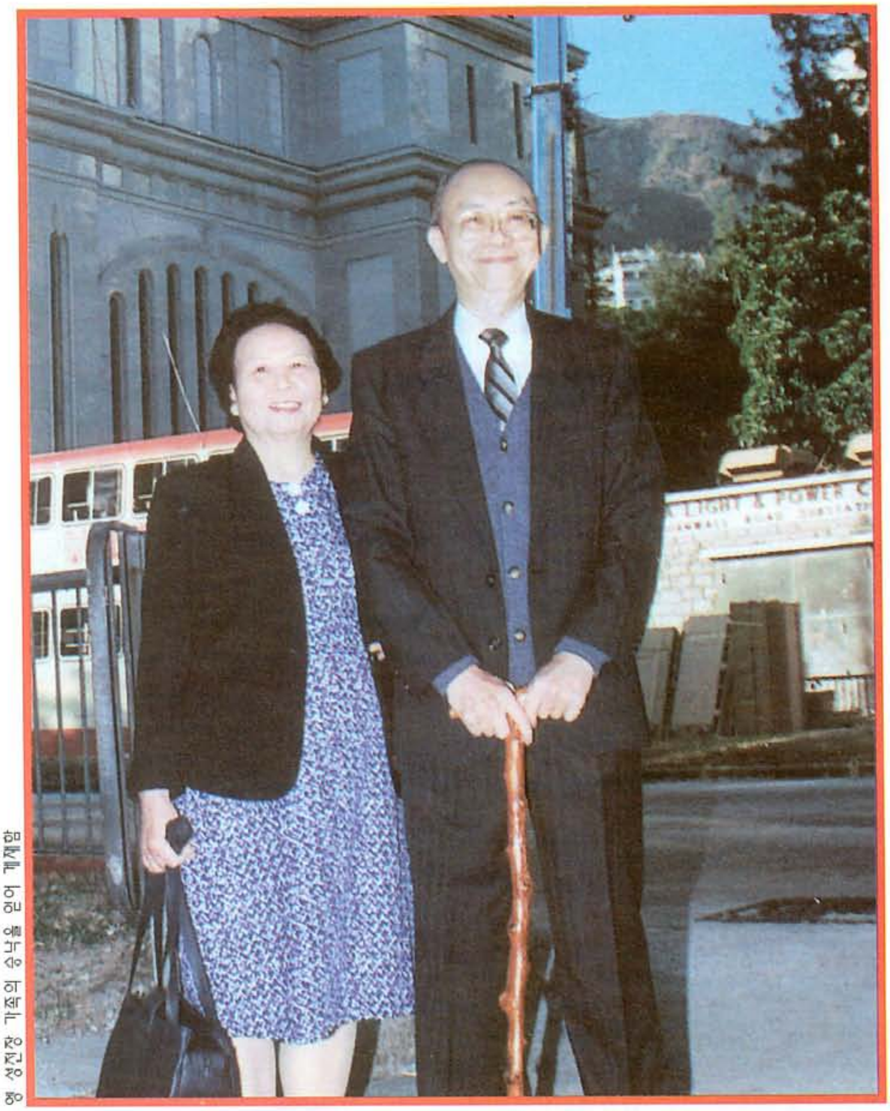
중요한 건물

1853년에 최초로 선교사들이 홍콩에 도착한 이래 홍콩 교회는 많이 변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은 불과 4개월 동안 홍콩에 체류하였다. 그로부터 1세기 후인 1949년에 가서 비로소 선교부가 실제로 개설되었다. 1950년까지 홍콩에 8명의 장로들이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모두 이동되었다.

1955년에 선교사들이 홍콩에 다시 들어왔다. 1960년까지 91명의 복음 선교사와 12명의 현지인 선교사들이 봉사를 하였다. 1960년 당시 여덟 개의 지부에 회원수는 1,700명이었다.

"성전은 우리가 염원했던 꿈이었지요.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라고 칠십인 정원회 회원인 타이 쿽 유엔 장로는 말한다. 타이 장로는 홍콩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그는 현재 고향에서 아시아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성전이 개설되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 희생의 중요성을 배움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같이 성스럽고 중요하지만, 홍콩의 성전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 공사를 하고 캐나다의 앨버타 성전의 복구 공사에 참여한 바 있는 성전 건축 책임자인 알렌 루돌프는 말한다. "건물 건축이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된 것은 기적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일



엥 성전장 가족의 승낙을 얻어 게재함

사진 촬영: 예스 토드 예덤스

사진 촬영: 쿨린 럭스 예덤스

위 왼쪽: 홍콩 성전장 엥 카트 힝과 아내인 엥 팡 레이 할, *위 오른쪽*: 한 자매가 상호 부조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 왼쪽*: 마 소 강과 아내인 마 팡 소우 웨이가 램 치 링과 약혼녀인 추이 치 핑과 담소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홍콩 아일랜드 스테이크, 샤우 케이 완 와드 회원인 레웅 이우 통, 아내인 레웅 콩 시우 추, 아들인 혹 만

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

사진 제공: 텔리그레프 컬러 도서관, FPG국제 재단

맨 위: 홍콩 성전의 헌납식에서 노래를 불렀던 합창단의 연습 시간. *위, 왼쪽:* 중국의 범선이 홍콩항에서 항해하고 있다. *아래:* 캐슬 챈과 린다 최는 새로이 헌납된 성전에서 최초로 결혼한 부부중 하나이다.

층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성전 건축에 역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들어설대로 들어서서 건축용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콩 성전을 이렇게 밖에 설계할 수가 없었다. 성전은 스테이크 센터겸 선교부 사무실, 선교부장 숙소로 사용하였던 복합 건물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의 실제 구조는 지상 6층이다. 건물외 윗부분 3개층을 성전으로 쓰고 있다.

건물에 출입구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모두가 일층에 있다. 출입구 하나는 성전 추천서 확인 데스크가 있다. 성전의식 참여자들은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보여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전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출입구는 건물의 기타 시설 출입용으로 쓴다. 성전 건물에는 선교부 사무실, 선교부장 숙소, 선교부 직원 숙소, 성전장 숙소, 가먼트 배부 센터, 예배당, 공과 교실 및 두 개의 와드용 사무실이 있다.

홍콩 성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족, 친구, 이웃 및 남녀 근로자들이 교회의 명판이 붙어있는 웅장한 석조 건물에 대해 물어 보기도 한다.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성취되었다. "처음에 건축 근로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라고 건축 부책임자인 칼 챔페그니가 말한다. "그들은 평소에 늘 하던 일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진척되면서, 근로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콩 코울룬 동 스테이크의 청남 청녀들이 근로자를 위해 오찬을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중 몇 사람이 복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홍콩 선교부장인 존 아키가 전한다. "그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통해 느낀 소감에 깊이 감명받은 모양입니다."라고 아키 선교부장은 전한다. "그들은 성전이 중요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전이 될 것임

홍콩의 회원들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각별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이 홍콩 성전 부지를 선택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셨고 구조상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홍콩의 회원들은 힝클리 대관장이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홍콩 성전의 헌납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제가 볼 때 홍콩 성전은 기적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땅에 주님의 성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꿈같은 일입니다.

"저는 대관장단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을 위해 일하도록 책임을 맡은 1960년 이후부터 줄곧 홍콩을 방문하였습니다. 거대한 중국에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을 할 때 마다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평생에 주님의 영감을 느꼈던 일이 있었다면, 중국으로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때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분명한 일이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홍콩 주민 중 약 9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창공 높이 우뚝 솟은 크고 앙상한 수천 개의 아파트 건물이 도시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좁은 거리에 출근 길이나 퇴근 길에 나선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야 할 정도로 빈틈없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사람들과 갖가지 활동으로 붐비고 있는 홍콩의 성전은 위안과 확신과 친근감을 주는 존재이다.

1997년 7월이면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고, 그 시점은 성전이 개관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때가 될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타이 장로는 말한다.

회원들은 이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질 램과 세 명의 자매, 부모 및 조부모 등 그녀의 가족은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 15매 이상의 여러 성전 엽서 사진을 이 밀집된 지역의 평균 크기인 자신의 11평 아파트 벽에 붙여 놓았다. 그 밖에 질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성전 사업을 위해 가족의 성명을 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성명을 준비하려면 중국, 인도네시아 및 심지어 대만까지 수 차례 왕복을 하여야 한다.

"가족 역사 기록을 작성하려면 고향까지 가야 합니다."라고 지역의 가족 역사 책임자인 피터 리가 설명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부의 전복이 있었을 당시 고국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일 세대 또는 이 세대 주민들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조상을 생각하면 그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피난민 출신의 회원들은 맨주먹으로 나왔습니다. 동란과 혁명 기간 중에 수많은 기존 기록들이 멸실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홍콩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와 찾아야 하는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홍콩의 다섯 개의 모든 스테이크에서 가족 역사를 위한 노변의 밤이 열렸다고 알려 준다. 단위 교회마다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 성찬식을 열었다고 한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3개의 가족 역사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며 친척과 상의하도록 권고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가족 역사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경우, 우선 자신과 가족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라고 그는 결론을 맺는다.

"한 번에 일 세대의 가계를 정리합니다."

가족 역사에 중점을 두게 되자 가족 역사 담당 선교사를 부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로 치 싱과 아내인 로 통 쿽 완은 4년 전에 가족 역사 담당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두 부부는 홍콩 제일 지역 가족 역사 담당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스테이크 선교사를 훈

련하고, 가족 역사반을 가르치고, 회원들이 가족 역사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회원들에게 가족 역사 기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도록 지도하고 싶습니다."라고 로 형제는 말한다.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부활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은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상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 역사 기록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기본적 사항이라고 로 자매는 지적한다. 가족 역사 선교사의 목표는 모든 회원들이 필히 가족 역사 양식을 작성하게 하는 데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필요한 경우, 개별 회원과 함께 양식을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우리는 한 번에 일 세대의 가계를 정리합니다."

성전 방문은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역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 역사는 홍콩의 회원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많은 회원들은 여러 해 동안 대만 성전에 성명을 보냈다. 이제는 이러한 성명들이 홍콩 성전에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의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해 회원들이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최소한 50,000개의 성명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홍콩 성전의 사무장인 스티븐 리는 말한다.

"패트릭이 할머니를 돌봐드릴거에요."

패트릭 웡은 자기 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30대 이상의 조상의 성명을 제출하였다. 현재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웡 장로는 성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저는 열여덟 살이었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가족 중에서 제일 처음 회원이 되었지요."라고 그는 말을 꺼낸다. "그러나, 일대의 대부분 개종자들과 달리, 부모님과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비롯하여 저의 가족 대부분이 입교를 하였지요. 부모님은 개종을 하였지만, 인봉을 받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1988년 아내와 제가 호주에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일 년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홍콩에 돌아왔을 때, 부모를 위한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우리 부부는 뜻을 모았지요. 저의 남동생은 대만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2개월 후, 아내가 꿈 속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나타난 어머니는 몹시 불행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불행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라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시동생이 나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패트릭이 어머님을 돌봐드릴거에요."라고 아내는 약속을 하였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꿈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저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웡 장로는 말한다. "그러나 두 주일 후 아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꿈을 꾸었지요. '아가야, 아들에게 내가 하루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전해 주겠니?' 아내가 꿈 얘기를 하였을 때, 마침내 저는 꿈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성전에 가서 부모를 위한 성전 사업을 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동생은 그 일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수씨가 병이 들어 좀처럼 낫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가셔서 그 일을 하여야겠습니다.' 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아내는 시드니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저의 부모에게 부부 인봉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성전 사업은 조상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웡 장로는 감격 어린 표정으로 결론을 맺는다. "저의 부모는 그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간절해 바랬지요. 다른 조상들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중국과 전세계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 대해 신뢰감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교회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

"인봉을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리 가족의 승낙을 받아 게재함

선교사들이 리 윙 푼과 아내인 리 칸 슈이 타오와 함께 있다.

1956년에 리 윙 푼과 아내인 리 칸 슈이 타오는 교회에 입교하였다. "제가 침례를 받았을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리 형제는 회상한다. 그러나 당시에 집회가 열리는 곳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금전 사정도 좋지 않았다. 리 형제가 산 몰몬경의 대금은 이틀치 노임에 해당하였다. 집회소까지 가는 차비도 꽤 비쌌습니다. 리 형제 부부는 차츰 차츰 교회 참석이 부진해지더니 마침내 교회 참석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저는 영어로 된 몰몬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리 형제는 말한다. 그는 그 당시에 영국군의 민간인 운전사였다. "그 몰몬경은 값진 재산이었지요."

여러 해 동안 선교사들이 이따금 방문하였다. 3년 전에 두 명의 자매가 목표를 주었다. "자매님들은 제게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도록 권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일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와 함께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기가 쉽질 않았다. 8년 전에, 리 자매는 뇌졸증에 걸렸다. 이제 은퇴를 한 리 형제는 아내를 돌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의 집 사람을 혼자 남겨둘 수 없어요."라고 그는 설명한다.

선교사들은 리 부부를 계속 방문하여 경전을 읽어주었다. 1995년 9월 리 형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40년 전에 리 형제에게 침례를 주었던 당시 선교사인 제리 휘트가 장로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들어 왔다. "저는 홍콩에서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휘트 장로는 이야기했다. "저는 리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늘 염려했지요. 수소문하던 끝에 선교사들이 리 형제님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들과 함께 리 형제님을 방문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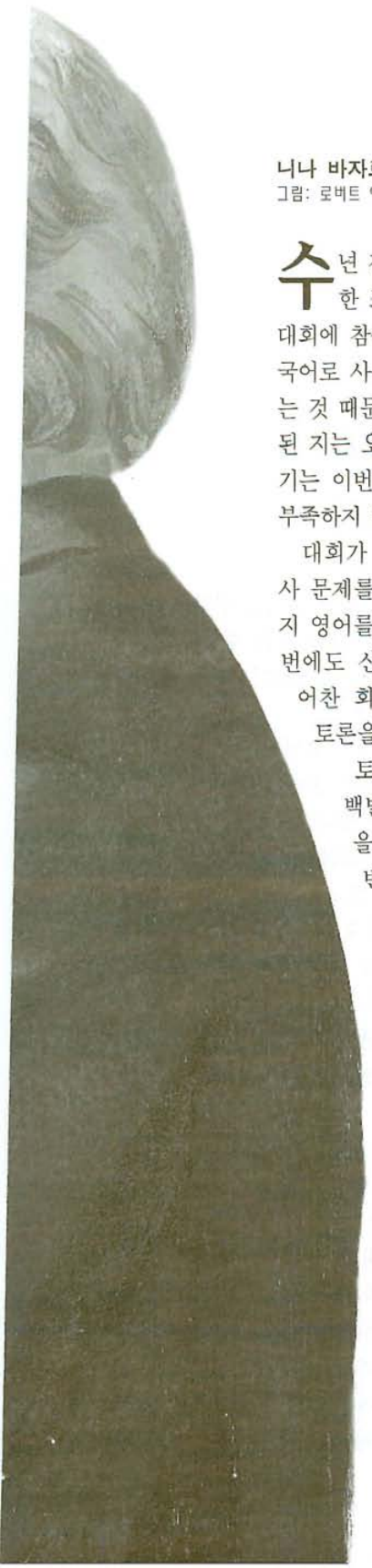
두 사람은 처음 만나자 마자 옛 친구처럼 포옹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 휘트 장로는 리 형제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저는 그에게 아내와의 인봉을 준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라고 휘트 장로는 설명한다. "그는 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교회에 나가는 동안 이웃 사람들이나 교회 회원들이 자기의 아내를 돌봐주도록 주선을 하였다. 와드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와 아내는 모로나이 천사상을 성전의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에 참석 하였다. 두 사람은 홍콩 성전이 개관된 지 수일 이내에 함께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인봉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크나큰 축복이지요."라고 리 형제는 말한다. "선교사들, 특히 저를 가르쳐 준 최초의 선교사들, 저와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위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준 자매들, 그리고 현재 저를 계속해서 방문해 주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참되며, 몰몬경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

나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니나 바자르스카야가 발레리 파커에게 한 이야기
그림: 로버트 에이 맥케이

수년 전에 나는 러시아 모스크바 부근에 위치한 쯔베니고로도에서 열린 국제 영어 교사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수들과 영어로 대화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영어 교사가 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이런 국제 대회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나의 영어 회화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대회가 끝나갈 즈음, 나는 러시아의 최근 시사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여태까지 영어를 많이 말하는 것을 기피해 온 나는 이번에도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회의장의 한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아 토론을 들었다.

토론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을 때, 한 백발의 미국인 교수가 일어서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 "러시아는 종교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고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우리 나라의 종교에 관한 의견 교환은 아직 이례적인 일이어서 아무도 답변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이 오히려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사실 그때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두려웠지만 나는 일어서서 영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종교를 가진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의 조상들 가운데는 성직자로 지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 몇 분은 스탈린 정권에서 순교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스크바로 출장을 갈 때면 저는 그 곳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저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 생활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실을 잊을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 종교의 자유가 새로이 허용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교사들이 내가 한 말에 관해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맨 처음 종교 문제를 꺼냈던 미국인 교수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온 분이었다. 그와 나 사이에 따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말일성도, 몰몬경, 회복된 복음 등에 관해 가르쳐 주었다.

그후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러 나의 고향인 보로네즈로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러시아인의 요리법에 관해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나를 그들의 일요 모임에 초대하였다. 그들의 일요 모임에서 느껴지던 순수하고 쾌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분위기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으며 그런 가운데 회개와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에 관해 배웠다. 1992년 12월 15일 모스크바에서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한 학생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1993년 1월 보로네즈에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그해 2월에 나의 아들이 침례를 받았고, 1년 후에는 그 아들이 나의 남편에게 침례를 주었다.

백발의 미국인 교수가 나에게 간증의 씨앗을 심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가족은 지금 내세에 대한 소망과 러시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

인간의 것이 아닌 나의 음성으로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가 현대의 경전에 쓰여진 위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목격했다면 그 장면이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요셉 스미스는 그의 옆에 열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가 주어질 때의 영의 임재와 외적 현상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하얀 빛이랄까 찬란한 광채가 그를 둘러쌌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로 디블은 그의 글에서 교리와 성약 76편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요셉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빛의 원소에 둘러싸인 듯이 보였으며 그의 얼굴은 투명체처럼 광채를 냈다."[1]고 썼습니다. 요셉이 교리와 성약 51편 계시를 받았을 때는 올슨 프랫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요셉의 얼굴이 몹시 하얗게 변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2]고 증거하였습니다. 브리감 영도 역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는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계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그의 얼굴이 특유의 안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

요셉은 설교할 때 계시의 영에 의해 설교하였고, 평의회 모임 중에도 계시의 영에 의해 가르쳤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가르칠 때, 그의 얼굴이 특유의 깨끗하고도 투명한 빛에 싸이는 것을 보고 그가 영에 의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시가 나올 때 말씀이 요셉으로부터 유연하게 흘러 나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계시 또한 철자법이나 구두점 따위의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칠 필요가 없는 것에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팔리 피 프랫은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는 문장마다 천천히 매우 분명한 발음으로 주어졌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보통 사람이 보통 속도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 도중에 말을 머뭇거리는 일이 없었고 주제 내용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앞의 계시를 재검토하거나 다시 읽는 일도 없었다. 또한 이전에 주어졌던 계시를 고치는 일이 없었고 행간에 말을 끼워 넣거나 말을 수정하는 일도 없었다. 요셉이 받아쓰라고 말하면 내가 본 바로는 서기는 동작을 멈추고 받아 쓸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나는 요셉이 한 번에 여러 건의 계시를 구술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는데 그 계시들은 건 당 서너 페이지씩은 되었었다."[4]

요셉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도 이같은 일을 보고 몹시 놀라워 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능력이나 생전의 학력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그처럼 구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행 가운데 교육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놀라워 하면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목격한 바로는 요셉이 그의 서기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떤 책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아주 빼어난 일련의 글을 전혀 미리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띄엄 띄엄 불러 주었습니다."[5]

그림: 주디스 메어, 교회의 조직 때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가 주어짐.

그림: 데일 킬본, 번역하는 요셉 스미스

요셉을 가장 잘 아는 그의 아내 엠마 역시 요셉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몬경 번역이 행해진 당시 (몰몬경 번역은 요셉이 커틀랜드에서 대부분의 계시를 받기 불과 3년 전에 시작되었음), 요셉은 몰몬경(교리와 성약이나 값진 진주에 대해서도 말할 나위가 없음)과 같은 책을 구술하는 것은 제쳐두고 글을 조리있게 잘 쓸 수도 구술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누구 못지 않게 저 역시 놀랍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6]

요셉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계속 놀라워하는 말을 한 엠마의 간증은 팔리 프랫의 증거와 비슷합니다. 그녀는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있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도 영감 받지 않고는 그 원고에 쓰여진 바와 같은 계시를 구술할 수 없다고 확신해요. 제가 요셉의 서기로 일했을 때 요셉은 저에게 여러 시간을 계속 구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나 또는 중간의 휴식이 있은 후 다시 구술을 시작할 때에도 그 분은 원고를 다시 보거나, 원고의 끝 부분을 읽어주지 않아도 구술이 중지되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는 그에게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분처럼 학식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7]

교리와 성약의 계시들은 몰몬경 번역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요셉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여러분은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참으로 위대한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경전들은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8:3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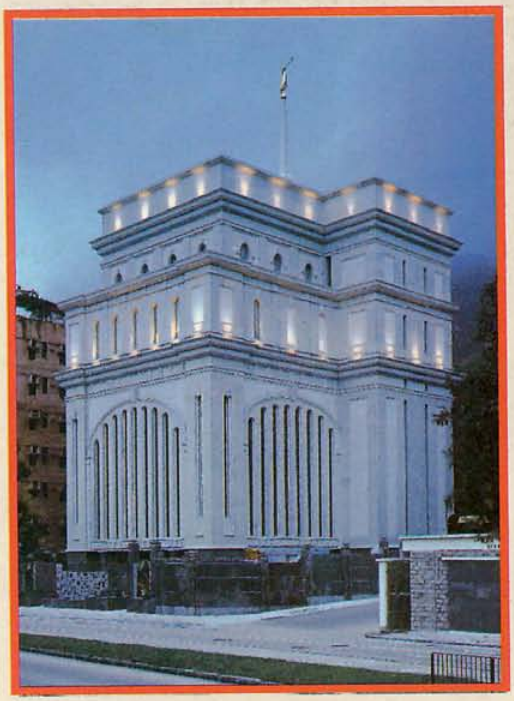
주

1. "초기의 교회사에 있었던 일", 비 에프 존슨,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네 가지 훌륭한 이야기*(1968년), 81쪽
2. *밀레니얼 스타*, 1874년 8월 11일, 498쪽
3. *설교집*, 9:89
4. 팔리 피 프랫, *팔리 피 프랫 자서전*(1950년) 48쪽
5.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1848년 8월호, 98~99쪽
6. "엠마 스미스 자매의 간증에서 발췌함", *세인츠 헤랄드*, 1879년 10월 1일, 290쪽
7. 같은 책

1994년 11월 6일에 개최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용함.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리버티 감옥의 요셉 스미스,*

1838년과 1839년 사이의 겨울 동안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부당하게 투옥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현재의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 123편에 기록된 심오한 계시들을 받았다.



왼쪽: 홍콩 성전.
오른쪽: 홍콩 톨로 하버 스테이크 타이포 와드의 에드워드 호 감독(위), 홍콩의 첫번째 가족 역사 선교사인 로취 쉉과 그의 아내 로 통 콱 완(사진 촬영: 켈린 릭스 애덤스)(가운데), 홍콩 코울룬 서 스테이크 순 리 와드의 리 찬 육풍과 자녀들, 스제항과 사이항(아래),
아래 쪽: 홍콩 코울룬 서 스테이크 콰이 충 제1와드의 세미나리 반 학생인 창 킨콱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한 1853년 이후, 홍콩의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1996년에 홍콩 성전이 헌납된 것을 들 수 있다. "홍콩의 꿈이 실현되다", 34쪽 참조